



**영국 MED, 0.28인치 초소형  
유기EL 디스플레이 출시**

영국 하이테크벤처인 MED가 이번달에 0.28인치 크기의 초소형 풀컬러 유기EL 디스플레이를 일본과 대만에 출시한다.

MED는 상보성금속산화막반도체(CMOS)에 고분자 유기EL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초소형 'ME3203'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23만화소를 갖췄으며 25만6000색을 표시할 수 있다.

한편 MED는 최근 0.18인치 소형 컬러TV를 개발, 시제품으로 내놓았는데 '세계최소화면'으로 기네스북에 올랐다.

**코니카미놀타-HP, 첨단 복사기  
공동개발**

코니카미놀타홀딩스와 미국 휴렛팩커드(HP)가 기업고객을 상대로 고성능 복사기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공동 개발에 나섰다.

이에 따라 양사는 매분마다 50장 이상의 인쇄능력을 지닌 중·고속형 복합복사기를 공동 개발한다. 코니카미놀타가 복사기의 심장기를 제공하고 HP는 독자적인 전자제어기구 및 소프트웨어와 연동할 예정이다.

3년간 5기종 정도를 제품화하고 오는 10월 첫 기종을 출시할 계획이다. 올해 또는 내년에 100억엔(8500만달러) 규모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IBM, 스토리지 신제품 발표**

IBM이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스토리지 시장 공략 강화에 나선다.

IBM은 '패스트T600 스토리지 서버' 등 미드레인지급 새 스토리지 제품을 발표했다. IBM은 '패스트T600' 외에도 보다 많은 용량을 저장할 수 있으며 데이터 복제기능까지 부가된 업그레이드 제품도 조만간 출시할 예정이다.

로랜드 하건 IBM 스토리지 마케팅 부사장은 패스트T600에 대해 "총 42개의 디스크 드라이브를 관리·처리할 수 있다"며 "서버 컴퓨터에 직접 부착하거나 SAN(Storage Area Network) 스토리지의 일부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장조사기업 IDC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디스크 스토리지 시스템 시장은 작년 동기에 비해 1% 적은 48억달러에 그쳤다.

**소니, 평판TV 생산 확대**

세계 2위의 소비자 가전업체인 소니가 평판TV 생산을 크게 늘린다.

소니는 날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평판TV 생산을 위해 아이치현 브라운관(CRT) TV 생산라인 3곳 가운데 1곳을 평판TV 제조용으로 전환한다.



평판TV 품목수도 현재의 7개에서 24개로 늘려잡고 연내 모두 15종의 신규 모델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회사측은 이들 새로운 평판TV의 가격대는 60만~250만엔에 이르고 향후 매달 2만5000대씩 생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대만 미택, MS·인텔 솔루션 휴대폰 개발

인텔의 반도체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운영체제(OS)를 채택한 휴대폰이 선보인다.

대만의 컴퓨터업체 미택은 올 가을 출시 예정인 자사 휴대단말기 신모델 '8380'에 인텔의 칩과 MS의 스마트폰2002 OS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제품은 음성통화와 함께 음악이나 동영상의 다운로드 및 재생, 이메일 전송 등이 가능하다. 미택의 관계자는 유럽에서 처음 출시되는 이 제품의 가격이 565~598달러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PC시장이 포화로 접어들면서 휴대폰 시장 진출을 추진해 온 MS와 인텔은 미택의 제품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말 두 회사는 인텔 칩에 MS의 OS를 채택한 휴대폰을 구상했지만 기존 핸드폰업체들의 견제로 상대적으로 지명도가 낮은 아시아 휴대폰 제조업체들과 제휴를 진행시켜 왔다. 실제 미택 이외에도 하이테크컴퓨터가 유사한 제품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 마쓰시타, 박막형TV 무기로 세계 TV시장 1위에 도전한다

일본 마쓰시타가 PDP TV와 LCD TV를 무기로 세계 TV시장의 선두자리를 노리고 있다.

마쓰시타는 다음달 새 브랜드 '비에라(VIERA)'를 내세워 14~32인치 LCD TV 10개 모델, 37~50인치 PDP TV 3개 모델을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5년 만에 TV분야에서 새 브랜드를 내세워 시장공략에 전력하고, 기존 '타우(T)' 브랜드는 브라운관(CRT) 방식 TV용으로만 사용키로 했다. 제품가격은 기존 모델에 비해 5~10% 낮출 예정이다.

마쓰시타는 사업전략 발표를 통해 "최신모델 출시를 계기로 박막형 TV분야를 집중 공략, 지난해 16%였던 세계시장 점유율을 2005년 30%로 늘린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회사는 오사카에 위치한 PDP 공장 증설을 통해 오는 2005년에 총 400만대의 박막형 TV(PDP TV 150만대, LCD TV 250만대)를 판매키로 했다. 이같은 매출규모는 이 회사의 전체 TV 매출의 60%에 이르는 것이다.

마쓰시타는 지난해 30만대의 박막형 TV를 판매해 1000억엔(1조원)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90년대 후반에는 베가 브랜드로 평면 브라운관 TV를 내놓은 소니에 완패한 바 있다.

CRT 방식을 포함한 세계 TV시장 매출 1위 업체인 소니는 지난해 LCD TV, PDP TV 등 박막형 TV시장 공략에서 삼성전자·LG전자 등과의 경쟁으로 세계시장 점유율도 0.2%p 감소한 9.3%에 그쳤다.